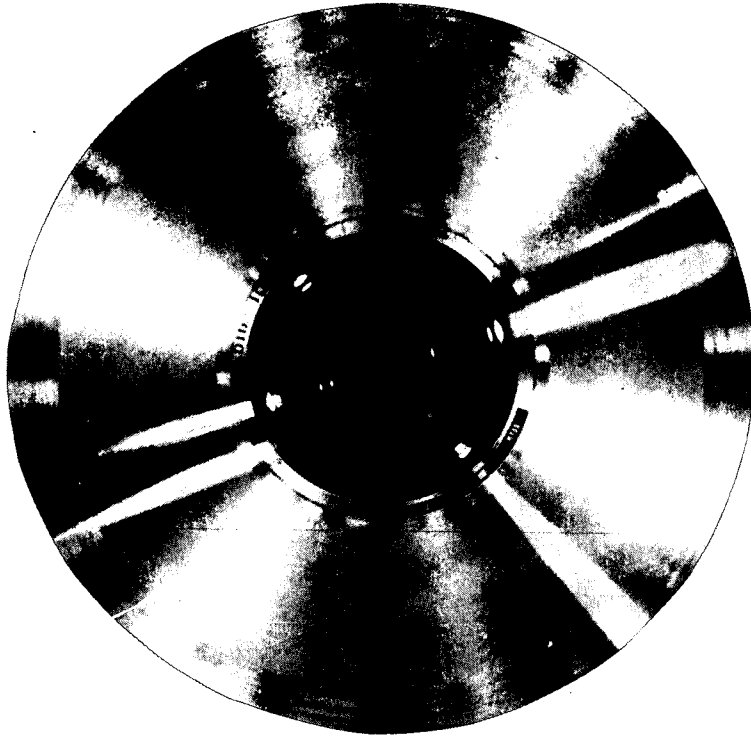


통신 예절 ... 말많은 호칭문제



1 987년 말로부터 1988년 말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PC통신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시기였다. 이 기간은 PC를 이용한 최초의 한글 통신 시스템인 데이콤의 “한-메일(H-Mail)”이 태동한 때이자 우리의 PC 통신 문화를 선도했던 아마추어 PC 통신클럽인 엠팔(EMPAL: Electronic Mail Pal)이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때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전에는 대형 컴퓨터를 통한 통신은 있었으며 PC를 이용한 통신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대기업에서도 IBM 호환의 PC를 생산하게 된 지 2-3년 밖에는 안되던 시점이고, PC가 일반 가정이나 학교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던때이다. 그러므로 통신은 커녕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마저도 신기한일로 여겨지던 것이 당연한 때이기도

했다. 특히 이 기간 전에는 통신이라면 단지 숫자나 영문으로 된 자료를 대형 컴퓨터간에 직결 전송선을 통해서 주고 받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모뎀의 사용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므로 “한글”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는 것이 낯설었고, 특히 PC와 모뎀을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라는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한글 편지를 주고 받는다는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신기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당시 앰팸의 주축 멤버였던
분의 말에 따르면 앰팸은 현재
의 PC 통신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미 그당시에

동”을 벌인적이 있었고 통신에
서의 호칭 문제는 끊임없이 시
비거리가 되는 문제였는데 위의
앰팸통신 예절에서는 공중이 모
여드는 통신시스템에서는 상대

있다. 언제나 듣기에 좋고 부르
기에도 좋은 호칭이 아닌가? 하
지만 이 호칭을 사용하는 데 있
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같은 또래이거나 친한 경우에
는 “재철 님” 등으로 호칭할 수
있지만, 10대의 사용자가 상대
의 나이가 50대인 경우에 “옥경
님”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
면 성까지 포함하여 “김옥경
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분의 사
용자 번호(id)가 wildboar라면
그것을 따서 “wildboar 님”이
라고 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글로써 타인을 대하게 되는 PC
통신에서는 타인에 대한 호칭을
어찌하는가 문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게 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신에
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
럼없이 “님”자를 붙여 불러주는
것, 이것은 마치 어느 광고문안
처럼 방금 만났어도 십년전에
만난듯(?) 정답게 보이고 만
난지 10년이 되었어도 1년 밖에
안된듯한 신선함이 있는 컴퓨터
통신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문화이다.

* 이글은 컴퓨터칼럼니스트인 김한국씨
의 글을 옮긴 것이다.



겪으면서 오늘에 대비했던 것으
로 느껴진다. PC통신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200명 미만에 지나
지 않던 당시에 앰팸의 초대회
장을 하던 현재의 한 컴퓨터 컬
럼니스트는 “통신 예절”이란 통
신 사용자 규칙을 장문의 글을
통해서 세워놓았던 때문이다.
이미 이 글 중에서 철저한 암호
의 관리, 타인에 대한 호칭 문
제, 업/다운로드 시의 예의, 저
작권침해 금지 문제 등의 현안
들이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었
다. 앰팸들이 벌인 운동 중에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인
에 대한 호칭 문제이다. 얼마전
하이텔에서 한 가입자가 통신인
들의 상대방 존중 예절을 확인
하는 의미에서 “님자 쓰기 운

방의 글만 보고, 그 사람의 나이
나 성별, 직위등의 제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가급
적이면 “선생님”이란 호칭을 사
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하지만 이런 호칭을 연장자가
나이 어린 상대에게 쓰는 데 따
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호칭은 곧 앰팸들의 ‘님’자 붙기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선
생님” 처럼 경우에 따라 어색하
지도 않고, “씨”로 호칭하는 것
처럼 건방져 보이지도 않으며,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능의 호칭이었던 때
문이다. 현재 모든 PC 통신인들
은 상대를 “님”으로 호칭하고